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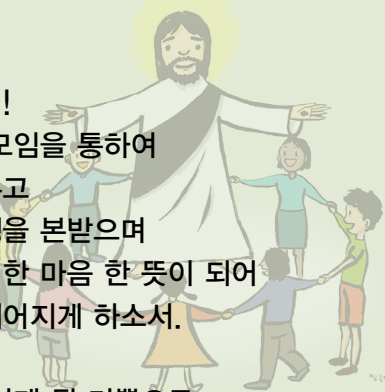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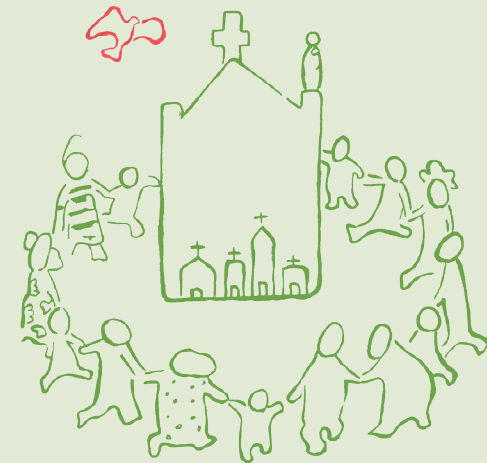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성령강림 대축일(6월 9일)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19-23)



성령 강림

- 지오토 디 본도네(추정) 1306-12, 패널화 런던 내셔널갤러리 -

“오순절이 되어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사도 2,1-4 참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는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지오토는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리시던 그날의 감격스런 체험을 역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5. 19.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42장 “오소서 성령이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오소서 성령님! 새로 나게 하소서.
- 주님, 저희 모두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놓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19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20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요한 20,19)

평소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었나요?

“성령을 받아라.” (요한 20,22)

내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다고 느꼈던 때는 언제인가요?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소서, 성령님. 주님의 빛, 그 빛살을 하늘에서 내리소서.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 오소서 은총 주님, 오소서 마음의 빛
가장 좋은 위로자, 영혼의 기쁜 손님, 저희 생기 돋우소서.
일할 때에 휴식을, 무더위에 시원함을, 슬플 때에 위로를.
영원하신 행복의 빛, 저희 마음 깊은 곳을 가득하게 채우소서.
주님 도움 없으시면, 저희 삶의 그 모든 것, 해로운 것뿐이리라.
허물들은 씻어주고, 메마른 땅 물주시고, 병든 것을 고치소서.

굳은 마음 풀어 주고, 차디찬 맘 데우시고, 빛나간 길 바루소서.
성령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성령 칠은 베푸소서.
덕행 공로 쌓게 하고, 구원의 문 활짝 열어, 영원 복락 주옵소서.
아멘.

-출처: 「올바른 성령이해」,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2008.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42장 “오소서 성령이여” 2절을 노래
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6월 16일)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 16,12-15)



삼위일체

– 엘그레코 1577-1579, 유채, 마드리드 프라도 국립박물관 소장, 스페인 –

삼위일체는 성령과 성부 성자의 수직적인 구도와 더불어 성부와 성자를 둘러싸고 있는 하늘의 천사들을 배치한 수평적 구도로 그려졌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의 아들을 품에 끌어안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부의 모습은 슬픔과 비통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 영원한 구원의 빛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하신 말씀이 연상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랑이 강렬하게 드러납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5. 26.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5장 “사랑의 하느님”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당신의 사랑 안에 일치하게 하소서.
-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저희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요한 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2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아직도 많지만 너희가 지금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 13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분께서는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는 것만 이야기하시며, 또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다. 14 그분께서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15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것은 모두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에게서 받아 너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내가 말하였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안으로 이 끌어 주실 것이다.” (요한 16,13)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동기가 있었나요? 그리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의 삼위일체(성 아우구스티노의 일화)

「고백록」의 저자로 유명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어느 날 바닷가를 거닐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성부·성자·성령이 계시는데 어떻게 한 분이신가? 한 분은 낳으시고, 한 분은 낳으심을 받으셨고, 이 두 분에게서 성령이 발하셨다면 선후 관계도 있을 텐데 어떻게 서로 높고 낮음이 없다는 말인가?’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바닷가를 거니는데 한 아이가 모래사장에 구멍을 파고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그 구멍에 계속 갖다 붓고 있었다. 아우구스티노는 의아해하며 아이에게 물었다. “너 거기서 무얼 하고 있는 거냐?” 이에 아이는 “네, 지금 바닷물을 몽땅 구멍으로 옮겨 담으려고요”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성인은 “아니, 이 어리석은 아이야. 그 작은 조개껍질로 언제까지 저 바닷물을 다 그 안에다 옮겨 담겠다는 거냐?” 하고 아

이의 무모함에 나무랐다.

그 아이는 “설령 제가 이 일을 완성한다 하여도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할 걸요”하면서 성인을 바라보았다. 아우구스티노가 깜짝 놀라 아이를 쳐다보는 순간 아이는 사라졌다. 이 이야기는 삼위일체 교리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교리임을 말해 준다. 왜냐하면 이 교리는 인간의 논리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출처: 「PD하느님」 DJ예수님, 바오로딸-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소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생활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25장 “사랑의 하느님”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소공동체

—칠암동본당 2구역 3반 반장 강숙귀 세레나—

조용하고 아름다운 진주 남강 주변에 자리 잡은 칠암동본당은 옥봉동 본당에서 분리되어 1965년 설립되었습니다. 1991년 12월, 갑작스러운 화재로 감실과 제의실을 제외한 대성전이 전소되는 시련도 있었지만 교우들이 일치하여 갖은 희생을 감수하고 땀을 흘린 끝에 1년여 만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성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칠암동본당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성인을 주보성인으로 모시고 있으며 교구 내에서 작은형제회 수도회 신부님께서 사목하시는 유일한 성당입니다. 가난, 겸손, 순종, 기도, 형제애로 상징되는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을 통해 복음 정신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모든 단체를 아우르고 격려해주시는 오학준 요한 신부님께서는 전 신자들의 이름을 한 사람이라도 더 기억하려 하십니다. 그 덕분에 쉬는 교우들의 미사참례와 공동체 행사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교적 등록 수는 2,700명, 미사 참례는 420여명 정도이며 소공동체는 3개 구역 1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공동체장 모임은 둘째 화요일 저녁 미사 후에 있으며, 소공동체모임은 반별로 하고 있습니다. 신부님께서 매달 소공동체 모임에 방문하여 격려해 주십니다. 교중 미사 후에는 성당 뜰에서 매주 조별 차 봉사를 합니다. 한 잔의 차를 마시며 따뜻한 시선으로 주고받는 인사말은 교우들은 물론, 성당의 한 공간을 사용하는 이주민들과도 친근하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명절 합동미사에는 2개 구역이 한 조가 되어 봉헌예물로 떡과 햇과일로 차례상을 준비합니다.

30대에서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2구역 3반은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모임은 저녁시간에 가지고 있으며 형제님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어 프란치스코회와 울뜨레아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당의 날 행사에서는 형제님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만든 음식을 나누어 소공동체 안에서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저희 소공동체가 주님의 은총 속에서 복음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기도드립니다.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2. 말씀 나누기를 위한 준비

2) 영적 독서

이는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하고, 교회는 특별히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성경 독서 방식의 스승인 교부 오리게네스는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보다도 그리스도와 친밀함과 기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상 그는 하느님을 알기 위한 최선의 길은 사랑이며,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의 말씀, 86항)

①거룩한 독서의 방법은 우리가 ‘본문을 읽는 것’(Lectio)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성경 본문은 그 내용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주님, 이 성경 본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며, 저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②다음으로는 ‘묵상’(Meditatio)이 따르는데 이는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성찰하고,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묵상이 ‘개인적’ 일이든 ‘공동체에’ 연관된 일이든 자기 자신의 삶에 비추어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③마지막으로, 거룩한 독서는 “기도(Oratio)의 순간에 이르게 되는데”, 이는 묵상 중에 주님이 들려주신 음성에 ‘구체적인 기도’(청

원, 전구, 감사, 찬미)로 응답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주님의 시선과 뜻’에 머무르는 ‘관상’(Contemplatio)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④“사실 관상은 우리 안에 하느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실재를 바라보는 시각을 갖게 하고 또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1코린 2,16)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 87항)

⑤또한 “거룩한 독서의 역동은 행동(Actio)에 이르기 전에는 아직 완결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행동은, 신자들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87항)

- 『소공동체 교육교재 <한마음 한 뜻으로>, 천주교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사목국 일정

■ 지구별 구역분과 위원장 모임 안내

지 구	일 시	장 소
마산지구	5월 29일(수) 오후 2시	양덕동성당
창원지구	5월 31일(금) 오후 2시	반송성당
진주지구	6월 5일(수) 오후 2시30분	신안동성당
거제지구	6월 7일(금) 오후 2시30분	고현성당

- 대 상 : 각 본당의 구역분과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총무
- 신 청 : 교구 공문을 참조하여 본당을 통해 신청
- 문 의 : 055)249-7021~3